

전남도, 봄철 농번기 공공인력 55만5천명 인력 지원

상황실 가동 실시간 모니터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 중개센터 운영·일손돕기 유도

전남도가 봄철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대학생, 도시민 등 55만5,000명의 인력을 농촌 현장에 지원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봄철 농번기 동안 농촌인력 지원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일선 시·군 농협과 손잡고 인력 수급, 인건비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군 간 인력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올해 봄철 농번기 5만ha에 달하는 주요 농작물 재배지에서 총 92만 5,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중 60%인 55만5,000명을 공공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기관단체와 대학생·도시민 일손돕기 참여 유도, 근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지난 해보다 43% 확대해 9,000여명이 19개 시·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와 근로 계약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용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도내 농촌인력중개센터 46곳(국내 인력 중개 31·공공형 계절근로 15)을 통해 17만명의 인력을 중개할 계획이다. 중개센터는 시·군별로 운영되며, 인력중개 외에도 근로자 대상 농작업 교육과 지원을 수행한다.

대학생, 청년, 기관단체 직원도 투입되며, 도시농부도 1,000명을 모집해 인력부족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은 인력 확보와 인건비가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과 중개센터 운영을 강화해 농촌인력 수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지사, 대선 공명선거 추진 협력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0일 도청 정철실에서 실·국장 및 영상으로 연결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참여 독려'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야생진드기 조심”

광주·전남에서 올해 첫 중증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11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발열과 가피(딱지) 증상을 보인 80대 여성(전남 동부권 거주)을 대상으로 혈액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일 SFTS 양성환자로 최종 확인됐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광주·전남에선 해마다 10~20명, 전국적으로도 15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2013년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후 최근 10여년간 1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주로 야생진드

기 활동이 활발한 5~9월 야외 활동이 많은 중장년,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은 만큼 봄철 발작물이나 임산물 채취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 돗자리 사용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긴팔·긴바지·장갑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정근산 기자

이재명 “양곡법 개정·공익직불금 확대”

농림축산식품 정책 발표 대학생 등 ‘친원 아침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의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

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재외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양곡법 개정을 약속한 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면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 확충도 공약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 3년 연속 선정

‘두 지역살이’ 20억원 투입 함평서 특화프로그램 진행

전남도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5년 고향올래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안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위케이션, 런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212억원(특고세 106억·지방비 106억)이다.

공모 결과 전국 12개 사업 중 전남도는 두 지역살이 분야에 합평군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사업이 선정됐다.

합평 대동면에 있는 함평향교와 대한민국 최초 철학학교인 ‘기본학교’가 있는 호접봉기, 월산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전통과 자연, 인문학을 융합해 역사와 창의적 사유를 잇기 위한 두 지역살이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 사업은 두 지역살이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면 월송리 401-1번지 일원에 소재한 65년의 전통가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총 20

억원(특고세 50%·지방비 50%)이 투입된다.

특히 이 사업은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함급박취를 찾아라 등 지역 탐방 프로그램, 의례 음식·스마트팜·곤충농장 체험 등 차별화된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11일 “전남이 로컬자원과 생활체류 연계에 특화됐음을 확인했다”며 “두 지역살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성일 도의원 “‘쌀 화환 문화’ 적극 장려해야”

지속 감소세 쌀 소비 촉진 화환산업 발전 대안 제시

전남도의회에서 쌀 소비 촉진과 침체된 지역 화환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쌀 화환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쌀 산업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쌀 화환 문화’ 확산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함께 식생활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확대 등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쌀 소비 기반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은 약 370만톤으로, 2000년 대비 33% 감소했고,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3.6kg에서 55.2kg으로 무려 41%나 급감했다.

김 의원은 “현재 3단 화환 기준으로 쌀 30%가 인조꽃으로 제작되고 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조꽃은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쌀과 국산 생화를 결합한 ‘쌀 화환’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산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Bowling,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골프는 광주 최고 수준의 PARC 시스템 스크린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골프는 광주 최고 수준의 PARC 시스템 스크린을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400㎡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라인 규모의 대형 bowling

2-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2리192(차량동) 구, 상무리2천번선생네담을